

# 중소 DTV업계 부품 공용화 확산

## 텍트론 등 5개사 이어 협의회 회원사 금형 공유

중소 LCD TV업체들의 부품 공용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려는 LCD패널업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원가를 절감하려는 중소 LCDTV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텍트론·에이텍·휴맥스 등 5개사가 37·42인치 LCD TV 부문의 백커버 금형을 공동사용키로 한데 이어 한국디스플레이기업협의회 소속 20여개사도 금형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LCD TV에 이어 PDP TV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금형 공용화는 앞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텍트론·에이텍·우성넥스티어·휴맥스·KTV 등 5개사의 경우 LG필립스LCD의 지원을 받아 금형개발을 완료, 최근 에이텍이 37인치 LCD TV를 출시하는 등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번 협력은 LG필립스LCD가 37·42인치 TV에 대한 금

형 개발비로 각각 50만달러씩 총 100만달러를 지원, 개발된 백커버 금형을 5개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프론트 커버와 스탠드는 각 회사가 독자적으로 디자인해 차별화한다.

한국디스플레이기업협의회 소속 20개사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 46인치 LCD TV의 부품 금형을 공동 개발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백커버 금형의 경우 3~4억원에 달한다”며 “37·42인치를 합하면 7~8억원 정도 절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부품공용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LCD TV의 화면 규격을 먼저 차지하고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 LCD 패널업체들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패널 공급과잉, 표준 경쟁, TV제조사들의 위상 격상 등 여러 요인으로 패널 공급사와 TV 제조사간에 전략적 파트너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며 “TV 제조사로는 결과적으로 비용을 낮추고, 패널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 올해 국내 e러닝시장규모 2조 6,000억

올해 국내 e러닝 시장 규모가 2조 6,000억원 대로 예측됐다.

삼성SDS 컨설팅센터는 1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e러닝 2005' 행사에서 발표한 'e러닝 산업실태조사 현황조사' 중간결과를 통해 올해 국내 e러닝 시장 규모가 2조 6,000억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해 e러닝 전문기업들의 매출 규모는 총 1조 3,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해 e러닝 수요는 기업부문 5,981억원, 정부·공공기관부문 365억원, 교육부문 120억원 등 모두 6,466억 원인 것으로 집계했다.

e러닝기업의 매출 규모별로는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과 10억~100억원 기업의 매출이 각각 2,072억원, 2,468억원 등이었고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의 총매출은 8,445억원으로 나타났다.

삼성SDS의 정광식 책임컨설턴트는 “올해 예측의 경우 콘텐츠, 서비스, 솔루션은 물론 관련 방송 분야까지 합산한 것”이라며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e러닝 시장이 2008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 올 IP셋톱박스 시장 급성장할 듯

수면 아래 머물던 IP셋톱박스 시장이 올해 50만대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도입 원년'을 맞을 전망이다.

1월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가 이 달 초 홈엔(HomeN)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IP셋톱박스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업계에 RFP를 요구한데 이어, SK텔레콤도 BcN시범사업의 일환으로 IP셋톱박스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주 발주하였다.

초기 도입물량은 KT가 5만대, SK텔레콤이 500대 내외에 불과하지만 연내에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하나로텔레콤이 IP TV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것을 감안할 때 올해 IP셋톱박스 시장규모는 적어도 5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도 “국내외 통신사업자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방송과 통신을 결합한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어 IP셋톱박스 시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도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6월 홈엔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KT(대표 이용경)는 기존 VOD 외에 제어서비스 및 홈 컨트롤 기능을 새롭게 추가, 오는 3월경 선을 보일 예정이다.

(출처: 전자신문)